

WOOD

P L A N E T

Be wood Be life - bookazine woodplanet 06.2017 No 63



정가 12000원



9 772234 780003 06

ISSN 2234-7801

SPECIAL 나무그릇

SECTION1 - 보다 (해외그릇)

- 14 에른스트 갬펠 5mm 두께의 비밀
- 20 프리드만 뷔러 바라보면 보일 것
- 26 울프 안슨 마치 종이를 다루듯
- 32 크리스토프 핀켈 아픈만큼 성숙한 나무
- 38 대니 캐머러스 크리스마스 선물
- 40 프란츠 카일호퍼 나뭇결의 타투

SECTION2 - 보다 (국내그릇)

- 44 미미스툰 그릇의 선을 따르다
- 48 보니데 목선반의 유희
- 52 유희디자인 구멍난 그릇
- 56 우드앤돌 달콤한 꽃접시
- 60 비슬목 숨은 곡선 찾기
- 64 두손 발 달린 접시
- 68 염동훈 그릇 위의 문양
- 72 나무아래 두 손 모은 그릇
- 76 희우 원목 만지는 기쁨
- 80 이미지&이미지네이션 사진가 박신우

SECTION3 - 만들고 배우다

- 88 이건우 갈이쟁이, 우드터너 되다
- 96 정상길 전통같이 발우 목수
- 104 박정화 가르친다는 것
- 112 어니언우드 깊고 얇게
- 116 어제의 나무 '숲 향기' 더듬기
- 120 앤켓 인심의 '클래스'
- 124 취목인 고득수 시애틀에서 온 그릇
- 132 전시소식 최기 개인전

SECTION4 - 칠하다

- 134 다채 다채로운 칠
- 138 여비진 예술을 입은 주방
- 142 나무의 꿈 매일매일 옷칠그릇
- 146 앤드바움 옷칠과 키포크
- 150 그릇 팁 나무그릇 잘 만들고, 잘 쓰기

SECTION5 - 쓰다

- 152 파티뷰 '오용은' "그릇은 음식만 담는 게 아니죠."
- 156 발리인망원 '서수경' "다 나무그릇 덕분이죠."
- 160 취목인 '장은영' "자연적인 분위기의 편안함을 줘요."
- 164 갤러리 '조은숙아트' 맛있는 도시락을 찾아서
- 166 조선의 목공예 목기
- 172 책수레 북유럽 그릇 디자인 외 3권

WOOD LIFE

- 174 여름 나라의 건축 태국, 베트남
- 188 밀라노 가구박람회 승부사 6인
- 194 가구디자이너 홍대 가구디자이너 석사학위청구전



표지사진
Black creek M&T '접시'

여름 나라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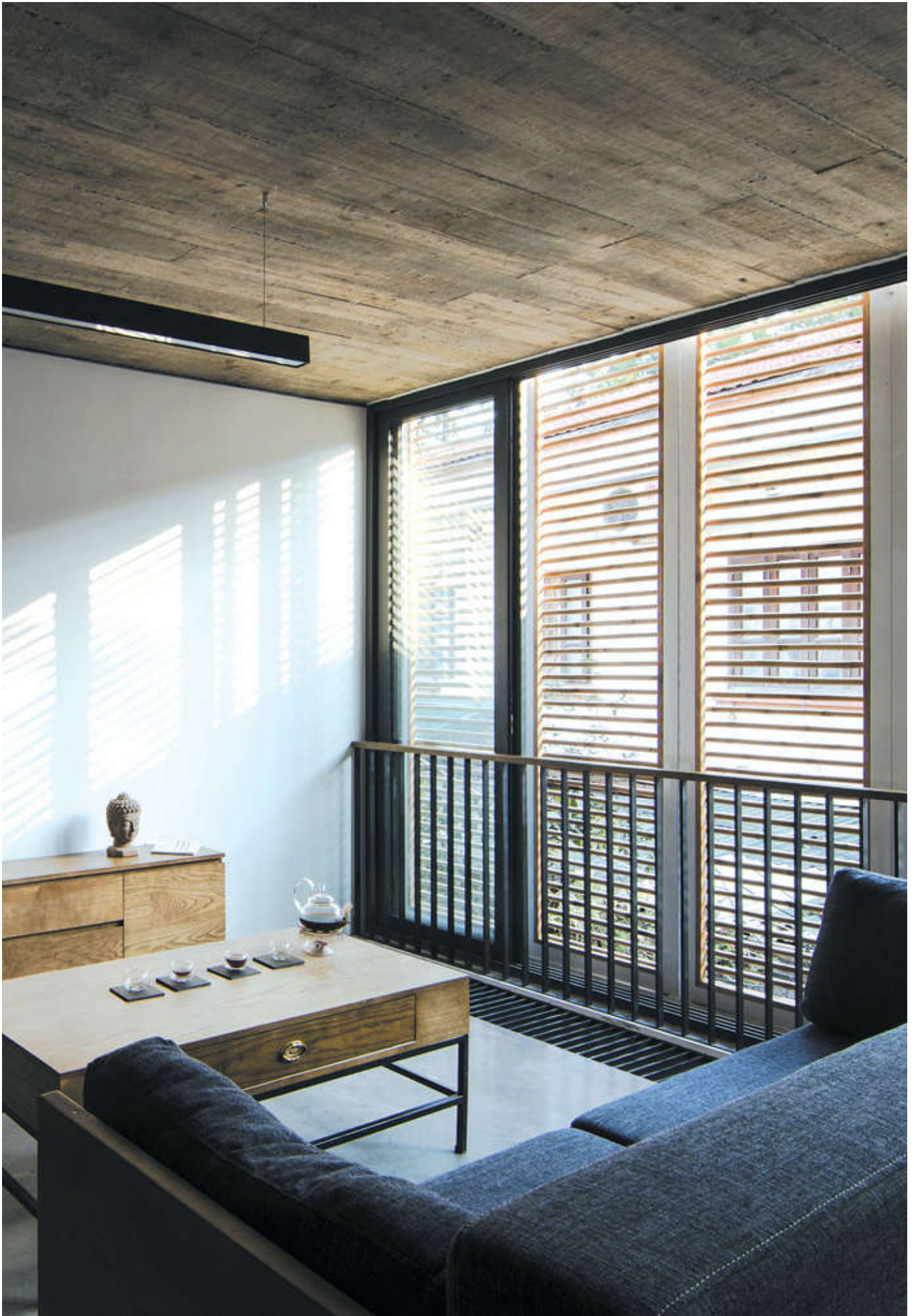
베트남 Nha Than Thien #003

너무 시원한 나무집

태양이 긴긴 시간 열기를 내뿜는 여름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런가하면 항상 여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여름을 어떤 집에서 보낼까.

글 배우리 | 사진제공 Global Architects & Associates







베트남은 고대부터 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해 집과 사원을 지어왔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나무는 알게 모르게 친숙한 재료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에서 나무와 대나무를 활용해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건축사무소는 하노이의 웨스트레이크 근처에 지역을 대표하는 소재인 목재를 활용해 베트남의 현대 생활 문화와 기후에 맞춘 여름의 집을 지었다.

문지기 빈랑야자

나탄티엔(친숙한 집) #003은 베트남 도심 지역의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 나탄티엔의 일환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된 하노이는 전통공예마을이 형성되고 발전해온 천년 역사의 고대도시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높은 건축 밀도로 인해 마을 본래의 조경 건축 양식은 심각하게 변형되었다. 글로벌건축사무소는 공간과 재료, 빛에 관한 이야기를 건물 구석구석에 반영하여, 주변과 어울리면서도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나탄티엔 #003을 지었다. 정면에서 건물을 바라보면 먼저 빈랑야자나무가 눈에 띈다. 이 나무는 비록 건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건축가들은 '친근한 집'이 있기 전부터 베트남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 온 '더 친근한' 야자나무를 그대로 살려 집의 풍경 속에 넣기로 했다. 그들의 예상대로 집 앞의 야자나무







글로벌 아키텍츠앤어소시에이츠 | 젊은 건축가 쿠옥 안(Quoc Anh)과 트롱 키엔(Trung Kien), 호앙 히엵(Hoang Hiep)이 공동 창립했다. GA+는 건축이 사람과 건축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발견하는 이해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공간과 장소에 깃든 고유한 영혼을 알리는 건축물을 짓고 있다.



두 그루는 친숙한 표정으로 오고가는 사람을 맞으며, 대나무 파사드와 어우러져 열대의 느낌을 잘 전달한다. 아자나 무는 이 집의 표정이자, 친절한 문지기가 됐다.

60 제곱미터의 크지 않은 부지로 올라온 이 건물은 총 4층. 1층은 차고, 주방, 식당 및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된다. 그 위 2층에는 거실과 작은 도서관이 있고, 복층 구조로 아래 식당과 같은 천장을 공유한다. 3층은 서재와 침실이, 마지막 4층에는 한 개의 침실과 옥상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4층을 오르내리는 나선형 계단 주변, 다양한 창을 통해 시시각각 들어오는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집만의 볼거리다.

집 안은 앞, 뒤로 나뉘는데 자연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조치다. 서향인 집의 정면은 거실이나 스터디룸을 배치해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했고, 편안한 휴게를 위해 침실은 비교적 어두운 집 뒤쪽에 배치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건축가에 따르면, 이 집은 베트남 전통 건축과 현지 재료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 생활양식에 적합한 공간이다. 분명 현대 건축이지만 건물 정면을 감싼 대나무 루버 덕에 건축은 소박한 열대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다. 알루미늄 프레임의 슬라이드 루버는 전체가 열려 서향인 이 집의 채광을 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루버는 채광 조절 외에 밤에는 외부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이 외에도 천장의 나무 콘크리트 패널, 나무문과 나무계단, 지붕의 테라코타 타일과 검은 스틸 트러스의 결합 또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현대건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새롭고 낯선 콘셉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색을 들여오으로써 거주자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잊지 않도록 했다.

이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료와 공간 설계에 신중을 기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채광과 자연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해 인공조명이나 가전제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베트남도 현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도시에 전통건축은 자취를 감추고 튼튼한 콘크리트가 대거 들어선 것. 나탄티엔은 전통 건축을 다시 되짚어봄으로써 지역 문화와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지역이 오랫동안 내주었던 재료들로 회귀하고, 간직했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야말로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는지. ♪